

불안장애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박진아[†]

정문자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유아기 정신병리의 주요증상이라는 임상적 관점에서 불안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를 남아와 여아별로 각각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종합병원 소아정신과 1곳과 아동발달임상센터 1곳에서 불안장애로 진단된 4세 6개월-6세 유아 105명(남아 64명, 여아 41명)과 그들의 어머니 105명이었다.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오현숙과 민병배(인쇄중)가 번안한 Goth(2003)의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JTCI) 유아용 기질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Mash와 Terdal(1981)의 Parent-Child Interaction Play Assessment(P-CIPA)에 따라 관찰 평정하였다.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유아에게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MacArthur Story-Stem Battery(MSSB)를 제시한 뒤, 유아가 보이는 정서조절 반응을 관찰하여 Fonagy와 Target(2000)의 MSSB 정서조절 측정도구에 따라 평정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t 검증, 부분상관계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불안장애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는 어머니 양육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는 유아의 성에 따라 각기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불안장애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민감·반응성 수준이 낮고 침해성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남아의 위험회피 기질적 취약성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불안장애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침해성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여아의 사회적 민감성 기질적 성향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완화시키는 일종의 보호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불안장애 유아, 유아의 성,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

* 본 논문은 2007년도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 박진아,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Email : pjinah1230@hanmail.net

최근 연구에 의하면 국내 3-7세 유아 중 6-13%정도가 고위험군 수준의 행동문제를 보이며 3-4%정도는 향후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가적 개입이 시급하게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더욱이 유아기에 정신병리를 보이는 경우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정신병리보다 예후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병리적 증상이 만성화된다는 종단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점차 유아가 보이는 정신병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Mash & Wolfe, 2002).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유아의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는데, 1990년대 이후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연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Cole, Michel, & Teti, 1994), 2000년대에는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정신병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Eisenberg, Champion, & Ma, 2004), 이후 아동·청소년기의 정신병리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ydell, Berlin, & Bohlin, 2003). 따라서 연구자들은 정신병리의 조기발견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함을 체언하고 있다(Cole, Teti, & Zahn-Waxler, 2003). 또한 임상가들도 임상 경험을 토대로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대한 개입을 강조할 뿐 아니라(Greenberg, 2002),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정신병리의 주요증상이라는 관점에서 유아기 정신병리는 결국 정서조절장애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Cole, et. al., 1994).

그러나 정신병리와 관련하여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개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

색하는 동시에 이들이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여러 학자들은 2004년도 Child Development 저널을 통해 정서조절에 대한 개념적 토의와 더불어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외적 변인들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발표하였다. 그 결과 여러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개인내적 요인 중에서는 유아의 기질, 그리고 개인외적 요인 중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대표적인 변인임을 지적하였다(Eisenberg, et al., 2004).

유아의 고유한 특성인 기질은 유아가 본인의 정서를 잘 조절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Garner & Power, 1996). Fabes와 Eisenberg(1992)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가 기질적으로 주의력과 통제력이 낮으며 정서의 강도가 높은 경우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유아가 기질적으로 지나치게 활동적이거나 융통성이 없고 주의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 갈등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문제를 회피하는 등 본인의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희수, 박성연, 2001).

이와 동시에 환경적인 맥락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중 유아와 매일의 일상생활을 함께 공유하며 양육하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정서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alkins, 1994). 유아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조절을 학습하게 되는데, 특히 갈등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가 정서를 조절하게 만드는 외적단서가 된다(Ladd, 1992).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긍정적 정서조절에(우수경, 최기영, 2002a), 유아에게 거부적이며 통제적인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희수, 박성연, 20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각각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발달은 개인내·외적 변인이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며(Cicchetti, 1990), 기질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Thomas, Chess, & Birch, 1968)에서 볼 때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선행연구자들도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개인내·외적 변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Calkins, 1994; Diamond & Aspinwall, 2003).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론적 가설이나 개념적 모형으로 설명되고 있을 뿐 실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임희수와 박성연(2001), 우수경과 최기영(2002a)의 연구가 있으나 이를 토대로 임상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이해하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이상의 연구들은 정상유아를 대상으로 정서조절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정신병리를 보이는 임상유아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반면에 임상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실제 경험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Gartz & Roemer, 2004), 국내의 경우 역기능적 정서조절과 정신병리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지

영, 권석만, 2006). 둘째, 이들 연구는 각 변인들 간 일방적인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대한 효율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각 변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임상유아를 대상으로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임상유아, 그 중에서도 특히 불안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유아기 불안장애가 유병률이나 발달정신병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정신병리이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전체 유아 중 약 20%가 불안장애를 보일 뿐 아니라 유아기의 다양한 정신병리 중 불안장애가 가장 유병률이 높은 장애로 나타났다(Albano & Krain, 2005). 또한 유아기 불안장애는 이후 아동·청소년기를 거치는 전반적 발달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만성적 불안이나 기타 여러 다른 정신병리로 전환되거나 공존병리가 증가하도록 만드는 위험요인이다(Wittchen & Essau, 1994). 그러므로 유아기의 경우 치료적 개입을 위한 실용적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정신병리보다는 불안장애 유아가 보이는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연구 상 두 가지 제한점, 즉 정서조절에 대한 합의된 개념 정의의 부재와 정서조절 측정의 방법론적 한계점(Cole, Martin, & Dennis, 2004)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 연구마다 사용된 용어와 정의가 다르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연구흐름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흐름은 생리심리학적 관점에서 정서자극이 제시된 뒤 나타나는 심장박동(Fox, 1989; Porges, Doussard-Roosevelt, & Maiti, 1994)이나 코티졸 반응(Stansbury & Gunnar, 1994) 등 생리적 변화로 정서조절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유아가 느끼는 정서와 정서의 조절과정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흐름은 기질특성의 한 부분인 정서적 반응성으로 정서조절을 이해하는 것이다(Fabes & Eisenberg, 1992). 그러나 이러한 관점 역시 정서반응을 조절해가는 과정과 행동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마지막 흐름은 정서자극이 야기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아가 보이는 대처행동 개념으로 정서조절을 이해하는 것이다(임희수, 박성연, 2001). 그러나 이는 정서조절의 인지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유아가 표현하는 정서와 정서를 조절하게 되는 과정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조절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인지적·행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정서적·인지적·행동적 측면에서 상황적 맥락에 맞도록 통제하거나 조율하지 못하고 극단적 방식, 즉 과잉으로 억제하거나 과장되게 표현하고, 맥락에 부적절하게 기이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머니 보고용 질

문지를 사용하거나 유아에게 정서자극이 유발되는 과제를 제시한 뒤 본인이 느낀 정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Cole, et. al., 2004). 그러나 유아가 실제 보이는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직접 관찰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Shields, Cicchetti, & Ryan,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상황에서 유아에게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과제를 제시한 뒤, 유아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보이는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관찰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정서조절에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 정서조절을 더 잘하고 긍정적 정서조절을 더 많이 하는 반면 남아는 여아에 비해 부정적 정서를 더 쉽게 느끼며 이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도 낮았다(우수경, 최기영, 2002b; Cole, et. al., 2003). 따라서 이러한 정서조절의 성차를 고려한다면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심리적 기제에서도 유아의 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는 성역할 행동에 적합하지 않은 남아의 불안 증상에 대해 여아와는 다른 양육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아의 기질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를 살펴봄에 있어 유아의 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유아기 정신병리의 주요증상이라는 관점에서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를 검증해보고, 이러한 중재효과는 유아의 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 지를 세부적

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 기 정신병리 중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불안장애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역기능적 정서조절과 관련된 유아기 정신병리에 대한 개념적 틀을 구체화하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불안장애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소재 종합병원 소아정신과 1곳과 아동발달임상센터 1곳에서 불안장애로 진단된 만 4세 6개월-6세 임상유아 105명(남아 64명, 여아 41명)과 그들의 어머니 105명이었다. 불안장애 유아를 선별하기 위해 우선 불안증상을 주호소로 하여 심리진단이 의뢰된 유아를 선정한 다음, 이경숙, 신의진, 신동

표 1. 연구대상 유아와 부모의 인구학적 배경 (N=105)

변인	구분	유아		어머니	아버지
		남아(n=64)	여아(n=41)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연 령	만 4세6개월-5세 미만	8(12.5)	5(12.2)		
	만 5세	26(40.6)	17(41.5)		
	만 6세	30(46.9)	19(46.3)		
진단명	분리불안장애	5(7.8)	7(17.1)		
	불안장애	54(84.4)	31(75.6)		
	강박증	1(1.6)	0(0)		
	불안증상	4(6.2)	3(7.3)		
부모 연령	20세-29세			17(16.2)	8(7.6)
	30세-39세			72(68.6)	75(71.4)
	40세-49세			14(13.3)	18(17.1)
	무응답			2(1.9)	4(3.9)
교육수준	중졸			3(2.9)	1(1.0)
	고졸			31(29.5)	14(13.3)
	전문대졸 이상			69(65.7)	88(83.8)
	무응답			2(1.9)	2(1.9)
직업	무직,전업주부			58(55.2)	0(0.0)
	단순노동직			2(1.9)	4(3.9)
	기술,사무직			25(23.8)	80(76.2)
	전문직			18(17.2)	19(18.0)
	무응답			2(1.9)	2(1.9)
사회 경제적 수준	하류				5(4.8)
	중류				85(81.0)
	상류				13(12.4)
	무응답				2(1.9)

주, 전연진과 박진아(2003)가 타당화한 Kamphaus와 Reynolds(1992)의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BASC)의 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K-BASC) 중 임상하위척도인 불안척도를 유아의 어머니에게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도구의 예비표준화 관련연구(이경숙 외, 2004)에서 불안집단의 기준점으로 제시된 점수(남아=12점, 여아=14점) 이상인 유아를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상심리전문가 1인의 지도감독 하에 본 연구자가 유아에게 심리평가를 실시한 뒤 소아정신과 의사 1인과의 협의 하에 DSM-IV와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주 진단명이 불안장애로 진단된 유아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적대적 반항장애, 신경과적 질환이나 정신지체, 언어발달지연을 공존병리로 보이는 유아는 제외하였다. 이는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동일 연령과 비슷한 수준의 언어적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유아와 부모의 인구학적 배경은 다음의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 전체 유아의 평균 연령은 5세 6개월, 유아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8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5세이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및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모두 고려해볼 때 본 연구대상 유아의 가정은 중상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측정도구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오현숙과 민병배(인쇄중)가 번안한 Goth(2003)의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JTCI) 3-6세

유아용 기질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새롭고 신기한 자극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보이며 행동이 즉각적으로 유발되고 흥분하는 유전적 성향인 ‘자극추구’, 낯설거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면 행동이 억제되고 위축되는 유전적 경향성인 ‘위험회피’, 대인관계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애착관계를 이루기 위해 사회적 보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전적 경향성인 ‘사회적 민감성’, 지속적인 강화가 없더라도 한번 보상된 행동을 일정한 시간 동안 꾸준히 지속하려는 유전적 경향성인 ‘인내력’ 등 총 네 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 별로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전체 신뢰도를 낮게 만들며 안면타당도를 통해 볼 때 개념이 다소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자극추구’ 1문항, ‘위험회피’ 1문항, ‘사회적 민감성’ 3문항)을 제외시킨 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험회피’와 ‘사회적 민감성’ 하위영역은 GFI, TLI, CFI 대부분 .90이 넘으며 RMSEA는 .08이하, $\chi^2/df(Q)$ 이 5이하로 적합도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홍세희, 2000; Tanaka, 1987). ‘자극추구’(GFI=.84, TLI=.89 RMSEA=.09)와 ‘인내력’(GFI=.86, TLI=.85 RMSEA=.10) 하위영역은 모형의 적합도가 그리 양호한 편이 아니라 요인부하량이 낮은 기타 문항들을 차례로 제거하면서 요인분석 과정을 반복·시행하였다. 그러나 적합도가 더 이상 의미있게 높아지지 않고 제거되는 문항수가 지나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일차 요인분석을 거친 문항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 모두 비표준화된 추정치에 대한 통계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보였다($p < .001$). 최종적으로 자극추구 13문항, 위험회피 14문항,

사회적 민감성 7문항, 인내력 9문항 등 총 43 문항이 선별되었으며,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0), ‘별로 그렇지 않다’(1), ‘약간 그렇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해당 하위영역 별 기질적 성향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별로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를 산출한 결과, ‘자극추구’는 .85, ‘위험회피’는 .86, ‘사회적 민감성’은 .64, 그리고 ‘인내력’은 .77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상 현장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하거나 치료 전, 치료 후의 부모 양육행동 증진을 관찰측정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Mash와 Terdal(1981)의 Parent-Child Interaction Play Assessment(P-CIPA)를 번안¹⁾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모의 관심표현’, ‘모의 칭찬’, ‘유아의 발달수준에 대한 모의 민감성’, ‘모의 정서성’, ‘모의 침해성’, ‘유아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의 반응성’ 등 여섯 개 하위영역에 대한 주성분분석 사각회전 방식(Oblimin)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가 유아의 상호작용에 적절한 수준으로 관심을 보이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칭찬하는 지를 측정하는 ‘민감·반응성’, 어머니가 유아와 상호작용 하면서 맥락에 적절한 수준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유아에게 긍정적 정서를 많이 보이는 지를 측정하는 ‘정서성’, 어머니가 유아와 상호작용 하면서 유아의 감정이나 의사를 무시하고 본

인의 의도대로 지나치게 통제적이며 침해적으로 행동하는 지를 측정하는 ‘침해성’의 총 세 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민감·반응성’이 3.7, ‘정서성’이 .79, ‘침해성’이 .59이었으며, ‘민감·반응성’은 전체 변량의 61.9%, ‘정서성’은 13.1%, ‘침해성’은 9.8%를 설명하였으며, 세 요인은 전체변량의 84.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검사에 대한 지시사항을 들은 뒤, 비디오 녹화시설과 놀이감이 구비되어 있는 검사실로 들어가 유아와 15분간 자유놀이와 5분간 정리시간을 포함해 평균 20분 동안 놀이하며 상호작용하였다. 전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임상전문가 1인과 함께 각 하위영역 별로 1점에서 9점까지의 평정기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평정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전체 사례 중 20사례에 대해 본 연구자와 임상전문가 1인이 각각 평정한 것을 토대로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민감·반응성은 $r=.89$, 정서성은 $r=.90$, 그리고 침해성은 $r=.91$ 로 나타났다.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아에게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반구조화된 이야기꾸미기 과제(MacArthur Story-Stem Battery: MSSB)를 제시한 뒤, 본 연구자가 번안한 Fonagy와 Target(2000)의 MSSB 정서조절 척도를 사용하였다. MSSB(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 &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 1990)는 유아에게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딜레마 상황을 제시한 뒤, 제시된 상황 이후 이야기를 꾸며보도록 요구하는 반구조화된 인형역할놀이 이야기 꾸미기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14개의 딜레마 상황 중 특히

1) 본 연구자가 척도 원문을 번역한 뒤, Sattler(2002)의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 관찰평정 척도를 참고로 하여 하위영역의 조작적 정의를 보완하고 임상전문가 1인과 함께 안면타당도를 확인하였음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대표적 딜레마인 엄마의 두통(어머니와의 갈등상황), 세 명의 갈등(또래 간 갈등상황), 잃어버린 열쇠(부모 간 갈등상황)의 세 개 딜레마를 제시하였다. 이는 불안장애 유아의 심리특성상 집중하여 수행하기에 적절한 딜레마 수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Kelsay, 2004). Fonagy와 Target(2000)의 MSSB 정서조절 평정척도는 MSSB를 실시하는 동안 유아가 보이는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관찰 측정하는 도구이다. 본 도구는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드러내지 않으며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인 '과잉억제',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맥락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과장되게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인 '과장표현', 유아의 정서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며 유아가 표현하는 정서와 관찰자가 느끼는 유아의 정서가 서로 모순되거나, 유아가 맥락에 부적절하게 기이한 형태로 정서표현을 하는 경향인 '정서조절 실패'의 세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을 측정하는 세부적 평정기준에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보이는 유아의 정서적·행동적·인지적 반응 측면이 모두 포함되도록 척도를 보완²⁾하여 사

용하였다. 예컨대 과잉억제의 경우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얼마나 과잉으로 억제하여 조절하는지를 정서적·행동적·인지적 반응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관찰하여 평정하였다. 본 척도는 1점에서 12점에 이르는 행동특성이 명시된 기술 평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전체 검사과정은 평균 25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검사 전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한 뒤 본 연구자와 임상전문가 1인이 함께 평정을 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전체 사례 중 20사례를 토대로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과잉억제는 $r=.90$, 과장표현은 $r=.89$, 그리고 정서조절 실패는 $r=.90$ 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불안

불안장애 유아를 선별하기 위하여 Kamphaus와 Reynolds(1992)의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BASC)를 이경숙과 동료(2003)들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K-BASC) 임상하위척도 중 불안척도(11문항)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 각 문항은 유아가 그런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 0점, 가끔 보이면 1점, 자주 보이면 2점, 언제나 보이면 3점을 평정하는 4점 평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대상 전체 유아의 평균 불안점수는 16.8점($SD=3.2$), 남아의 평균 불안점수는 17.6점($SD=2.9$), 여아의 평균 불안점수는 16.4점($SD=2.4$)이었다.

유아 언어성 지능

유아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박혜원, 광금주, 박광배(1995)의 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2) Shields와 Cecchetti(1997)의 정서조절 관찰척도 중 부적절함/부적응적 정서조절 평정기준을 참고로 하였음

① 정서적 반응: 유아의 얼굴표정과 목소리 톤, 제스처 등을 관찰하면서 부정적 정서표현의 강도와 유연성 및 맥락적 적절성을 관찰 측정하였음/ ② 행동적 반응: 유아가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이야기를 꾸미는 동안 보이는 맥락에 부적절한 행동특성을 관찰 측정하였음/ ③ 인지적 반응: 유아가 이야기를 꾸미는 동안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딜레마 갈등상황을 인지적으로 어떻게 다루어 대처하는지를 관찰하여 측정하였음.

Intelligence(K-WIPPSI) 중 언어성 지능 소검사인 상식(27문항), 이해(15문항), 산수(23문항), 어휘(25문항), 공통성(20문항)의 다섯 개 영역을 토대로 각 소검사들의 환산점수를 합하여 언어성 지능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대상 유아의 지능은 모두 경계선에 해당하는 언어성 지능 점수 79점(박혜원 외, 199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유아의 평균 언어성 지능은 100.2점(SD=8.9), 남아는 98.7점(SD=7.2), 여아는 101.4점(SD=9.2)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WIN 12.0 프로그램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측정변인의 성차를 살펴보고자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변인들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유아의 성을 통제한 부분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유아의 기질과 역기

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남녀 집단별로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 해당 기질과 양육행동의 차원을 중앙값을 기준으로 각각 상·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별로 각각 유아의 기질을 독립변수로 하여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예측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준화 회귀계수(β)를 산출한 뒤 이를 비교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우선 측정변인들의 성차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불안장애

표 2. 유아의 성에 따른 측정 변인의 점수 범위와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변인	성별 통계치 하위영역	남아(n=64)		여아(n=41)		<i>t</i>
		범위	M(SD)	범위	M(SD)	
유아의 기질	자극추구	4-48	25.6(9.9)	9-32	20.1(5.9)	4.7***
	위험회피	9-47	30.4(10.3)	13-48	25.1(7.8)	3.3***
	사회적 민감성	7-24	14.8(3.9)	10-25	16.4(3.9)	-2.5**
	인내력	6-30	18.4(6.0)	7-29	17.2(5.4)	1.4
어머니의 양육행동	민감·반응성	7-33	18.1(6.5)	8-33	17.7(6.3)	.47
	정서성	1-6	3.1(1.4)	1-7	2.9(1.5)	.62
	침해성	1-8	4.7(2.2)	1-8	3.8(2.1)	3.0**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	과잉억제	2-11	8.2(3.2)	2-11	8.1(2.9)	.02
	과장표현	2-10	5.1(2.89)	2-9	4.8(2.6)	.48
	정서조절실패	2-11	7.7(2.5)	2-11	6.4(2.3)	2.5*
	충접	11-25	19.6(3.9)	10-24	17.6(3.0)	4.2***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측정변인들 간의 부분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연령	1											
(2) 자극추구	.06	1										
(3) 위험회피	-.15**	.39	1									
(4) 사회적 민감성	.02	-.15	-.03	1								
(5) 인내력	.04	.06	.18	.17*	1							
(6) 모의 민감·반응성	.03	.19	.20	.20	.32	1						
(7) 모의 정서성	-.08	-.25	-.16	-.09	.07	.67***	1					
(8) 모의 침해성	-.17**	.24**	.37*	-.30*	-.10	-.48**	-.37**	1				
(9) 과잉억제	-.19**	.15	.37***	.13	.11	-.04	-.03	.20**	1			
(10) 과장표현	.08	.41 ⁺	-.16*	-.24*	-.07	-.20**	-.20*	.30	-.79***	1		
(11) 정서조절 실패	-.27	.20	.15 ⁺	-.25***	-.30	-.19	.12	.05	.21	.17*	1	
(12) 총점	-.33***	.19*	.29***	-.28***	.05	-.28**	-.26**	.39*	.29***	.39*	.44*	1

* $p < .05$, ** $p < .01$, *** $p < .001$, ⁺ $p < .10$

남아는 여아에 비해 기질적으로 자극추구 성향($t=4.7, p<.001$)과 위험회피 성향($t=3.3, p<.001$)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기질적으로 사회적 민감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 p<.01$). 또한 불안장애 남아의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보다 유아와 상호작용 시 더 침해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3.0, p<.01$), 불안장애 남아가 여아에 비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더 많이 보였다($t=4.2, p<.001$). 다음으로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유아의 성을 통제된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연령은 역기능적 정서조절과 부적 상관($r=-.33, p<.001$), 유아의 기질 중 위험회피는 역기능적 정서조절과 정적상관($r=.29, p<.001$),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은 역기능적 정서조절과 부적상

관($r=-.28,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민감·반응성과 정서성은 역기능적 정서조절과 부적 상관($r=-.28, p<.01$), $r=-.26, p<.01$), 침해성은 정적 상관($r=.39, p<.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불안장애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남녀 집단별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변수를 만들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표 5와 같다.

우선 남아의 경우 유아의 연령, 기질(위험회피), 어머니 양육행동의 주 효과 이외에도 위

표 4. 남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양육행동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					
		민감·반응성		정서성		침해성	
		β	ΔR^2	β	ΔR^2	β	ΔR^2
모델 1	유아의 연령	-.37***	.11***	-.35***	.11***	-.62**	.10*
모델 2	위험회피	.17*	.03*	.17 ⁺	.03 ⁺	.18	.01
모델 3	양육행동	-.27**	.04*	-.28**	.05**	.46**	.10**
모델 4	위험회피×양육행동	-.25**	.05*	-.23	.05	.25*	.06*
전체 R ²		.23***		.24***		.27***	

* $p < .05$, ** $p < .01$, *** $p < .001$

협회피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민감·반응성과 침해성에서 추가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험회피 기질과 어머니의 민감·반응성과 침해성 점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상·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어머니의 민감·반응성, 그리고 침해성 점수 상·하 집단별로 위험회피를 독립변수로 하여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예측하는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표준화 회귀계수(β)를 산출한 뒤 이를 비교하였다(그림 1, 그림 2). 그 결과 어

머니의 민감·반응성 수준이 높은 집단($\beta = .07$, n.s.)에서는 유아의 위험회피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 간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민감·반응성 수준이 낮은 집단($\beta = .40$, $p < .001$)에서는 남아의 위험회피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정서조절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양육에 있어 민감하지 못하고 유아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반응적이지 못할 경우에만, 남아의 위험회피 기질적 취약성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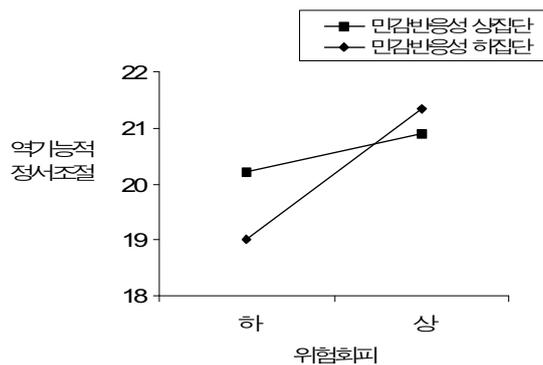


그림 1. 남아의 위험회피와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대한 어머니 민감·반응성의 중재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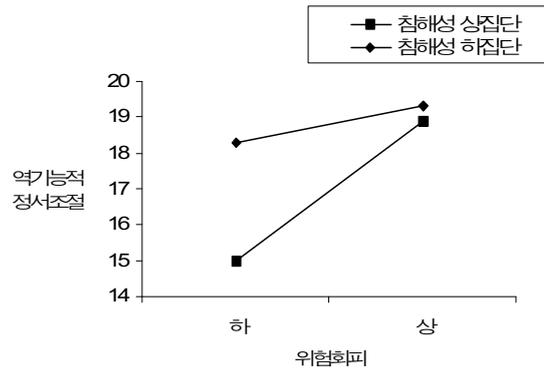


그림 2. 남아의 위험회피와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대한 어머니 침해성의 중재효과

의 침해성 수준이 높은 집단($\beta=.47, p<.001$)에서는 남아의 위험회피 기질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정서조절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침해성이 낮은 집단($\beta=.40, n.s.$)에서는 남아의 위험회피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 간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가 양육에 있어 유아의 감정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지나치게 통제적이고 주도적이며 침해적인 경우에만, 남아의 위험회피 기질적 취약성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여아의 경우 유아의 연령, 기질(사회적 민감성), 어머니 양육행동(침해성)의 주 효과 이외에도 사회적 민감성과 어머니의 침해성 간 상호작용 효과가 추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에 따라 사회적 민감성과 어머니의 침해성 점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상·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어머니의 침해성 점수 상·하 집단별로 사회적 민감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예측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준화 회귀계수(β)를 산출

표 5. 여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

독립변인	양육행동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					
		민감·반응성		정서성		침해성	
		β	ΔR^2	β	ΔR^2	β	ΔR^2
모델 1	유아의 연령	-.14	.10*	-.06	.10*	-.25	.09*
모델 2	사회적 민감성	-.34*	.12**	-.50*	.12**	-.49***	.12**
모델 3	양육행동	-.35*	.05*	.04	.02	.14*	.08*
모델 4	사회적 민감성×양육행동	.17	.02	-.16	.01	.31*	.04*
전체 R ²			.29***		.25**		.32***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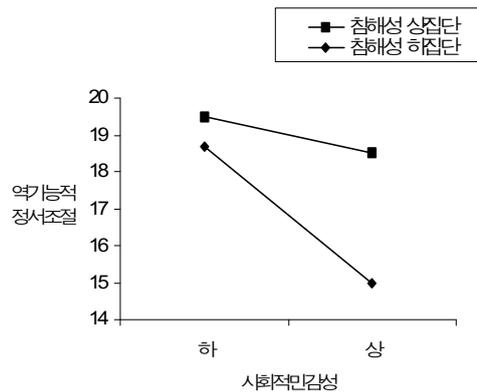


그림 3. 여아의 사회적 민감성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대한 어머니 침해성의 중재효과

한 뒤 이를 비교하였다(그림 3). 그 결과 어머니의 침해성 수준이 낮은 집단($\beta = -.48, p < .001$)에서는 여아의 사회적 민감성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정서조절 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침해성 수준이 높은 집단($\beta = -.20, n.s.$)에서는 여아의 사회적 민감성과 역기능적 정서조절 간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가 양육에 있어 통제적이거나 침해적이지 않고 유아의 감정이나 의사를 존중하는 경우에만, 여아의 사회적 민감성 기질적 성향이 역기능적 정서조절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불안장애 남아가 여아보다 기질적으로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남아는 기질적으로 여아에 비해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며 행동이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많은데(Tannen, 1990), 이는 남아의 성역할행동에 부합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반면, 여아의 이러한 성향은 용납되지 않고 제재 당하게 된다. 따라서 남아의 경우 기질적으로 높은 자극추구 성향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강화되기 때문에 여아보다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남아의 위협회피 성향이 여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협회피 기질적 특성은 불안장애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Mick & Telch, 1998) 불안장애 유아의 경우 생후 초기부터 높은 수준의 위협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남아의 성역할 행동에 반대되는 이러한 성향은 남아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 성인에 의해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되므로 불안장애 남아의 기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협회피 성향이 강화되어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아기 정신병리 중 불안장애의 경우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사회적응과 관련되어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반면에 여아가 남아에 비해 기질적으로 사회적 민감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여아는 기질적으로 남아에 비해 타인의 반응에 더욱 민감하고 공감적인데(송명자, 1995), 이는 여아의 성역할행동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후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어 남아에 비해 여아의 사회적 민감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안장애 남아의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에 비해 통제적이고 침해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인 결과는 불안증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연관 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여아의 불안 증상은 용인되지만, 남아의 독립성과 남성성을 중요시하는 동양 문화권에서 불안수준이 높은 남아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지 못한다. 따라서 불안장애 남아의 어머니는 여아의 어머니에 비해 상호작용 시 불안증상이 나타났을 때 남아의 감정이나 의사를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침해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측은 어머니가 여아 자녀에 비해 남아 자녀의 불안증상을 비롯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신경질적이며 처벌적인 반응을 더욱 많이 보였다는 Eisenberg, Fabes와 Murphy(1996)의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불안장애 남아가 여아에 비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많다는 선행연구(Eisenberg, et al., 2001)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첫째, 남아와 여아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기인된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성차가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생아를 연구한 Weinberg, Tronick, Cohn과 Olson(1999)에 따르면 남아는 여아에 비해 정서조절을 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기본적으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정서조절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사회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남아는 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해소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게 되므로 여아에 비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더욱 많이 보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언어발달의 성차와 관련하여 이해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언어적 유창성이 더 높으며 언어발달도 비교적 더 빠른 편이다(신정혜, 황상민, 1994). 따라서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부정적 정서를 보다 적절하게 언어화시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변 성인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남아에 비해 여아의 언어기능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났던 점(남아=98.7점, 여아=101.4점)을 고려한다면 언어발달 수준의 차이가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아의 기질 중 위험회피는 역기능적 정서조절과 정적관계가, 사회적 민감성은 역기능적 정서조절과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기질적으로 위험회피 수준이 높은 유아는 갈등상황에 처하면 행동이 더욱 억제되고 위축되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를 적극적으로 조절하려하기 보다는 과잉으로 억제시켜버리거나 맥락에 부적절하게 정서표현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이는 기질적으로 행동억제 성향을 많이 보이는 영아의 경우 낮은 상황에 처하면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Escalona(1968)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또한 유아의 사회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덜 보인다는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첫째, 기질적으로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유아는 부정적 정서를 혼자 심리내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절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유아는 본인의 부정적 정서를 적극적으로 주변에 표현하여 지지나 도움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기질적 성향으로 인해 주변의 도움을 더 빠른 시간 내에 받아들여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덜 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유아는 타인이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지 다양하게 관찰하여 학습할 수 있으므로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덜 보인다고 추측된다. 실제로 매일의 일상을 공유하는 어머니가 정서조절을 잘 할수록 유아 또한 갈등 상황에서 정서조절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Eisenberg와 동료(1996)들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어머니의 민감·반응성과 정서성은 역기능적 정서조절과 부적관계가, 침해성은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정적영향(우수경, 최기영, 2002a)을,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부적영향(McFadyen-Ketchum, Bates, Dodge, & Pettit, 1996)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첫째, 유아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조절을 학습한다는 측면에서 설명해볼 수 있다(Cassidy, 1999). 어머니가 민감하게 유아의 반응을 살피며 적절한 순간에 반응을 보여주면 유아는 어머니와 안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본인의 부정적 정서를 어머니에게 표현하

여(Cassidy, 1994)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덜 보이게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어머니가 지나치게 통제적이고 침해적이면 유아는 본인의 부정적 정서를 어머니에게 솔직히 표현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많이 보이게 될 수 있다. 둘째, 유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정서조절을 모델링한다는 측면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긍정적 양육행동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과 적절한 정서조절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유아는 갈등 상황에서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덜 보이는 반면, 부정적 양육행동에서 드러나는 어머니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경험한 유아는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더 많이 보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의해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강화된다는 Eisenberg, Cumberland와 Spinard(1998)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불안장애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불안장애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의 개인내,외적 변인이 상호작용하여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Calkins(1994), Diamond와 Aspinwall(2003)의 이론적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불안장애 유아의 성에 따라 중재 효과에 각기 다른 경향성이 나타났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민감·반응성 수준이

낮은 경우, 그리고 침해성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위협회피 기질적 취약성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장애 남아가 위협회피 기질적 취약성으로 인해 갈등상황에서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어머니의 민감하게 반응적이지 못하거나 침해적인 양육행동이 이를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민감·반응성 양육행동의 중재효과는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민감하지 못할수록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여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더 많이 보였다는 Osofsky와 O'Connell(1977)의 연구결과, 어머니의 민감·반응성이 이후 남아의 적응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Warren과 Simmens(2005)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위협회피 수준이 높은 남아는 낮은 상황이나 갈등상황에 처하면 행동이 더욱 억제되고 위축되는데, 이 때 어머니가 민감하게 파악하여 적절하게 반응하는 완충역할을 하지 못하면 남아는 본인의 부정적 정서를 적극적으로 조절하려 시도하기 보다는 과잉으로 억제시키거나 아예 극도의 긴장감으로 인해 맥락에 부적절하게 조절하게 된다. 특히 남아의 적극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어머니는 남아의 심리적 문제나 기질적 취약성에 둔감할 수 있다. 더욱이 민감·반응성이 낮은 어머니는 남아의 심리에 대한 파악이 좀더 어려울 것이므로, 갈등상황에서 남아에게 적절히 개입하여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아가 위협회피 기질적 취약성을 드러낼 지라도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주지 못하면 남아의 기질적 취약성이 더욱 강화되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짐작된다.

침해성 양육행동의 중재효과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하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여아보다는 남아의 적응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운주(2004)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불안장애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지나치게 통제적이거나 침해적이면 남아는 이를 실제보다 더 강도 높게 지각하여 주변 환경을 매우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남아는 갈등상황에서 이를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를 과잉으로 억제시키버리거나 맥락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은 기질적 취약성을 보이는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어머니의 통제적인 양육행동에 더욱 영향을 많이 받아 이후 발달상 문제를 보이게 된다는 Belsky(1997)의 주장과도 일관성 있는 것이다. 또한 불안장애 남아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침해적이며 본인의 의도대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어머니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위협회피 기질적 취약성이 강화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를 직접 시행착오를 거치며 적극적으로 조절해보는 정서조절 학습의 기회가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어머니는 여아에 비해 남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더욱 신경질적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난 Eisenberg과 동료(1996)들의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침해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어머니는 행동억제가 쉽게 되는 성향의 남아가 부정적 정서를 스스로 조절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다려주기 보다는

더욱 강도 높게 본인의 의도대로 남아의 행동을 수정해버리거나 처벌하는 동시에 부정적 정서 표현 자체를 억제시켜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아는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더욱 많이 보이게 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초기 유아기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후 적응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Weinberg와 동료(1999)들의 연구결과를 참고해볼 때 불안장애 남아의 이후 발달경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불안장애 유아가 남아인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다른 어떠한 요인보다도 이후 적응과 정신병리 발달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대상의 경우 부가적으로 어머니-자녀 간 관계문제를 보이는 비율이 남아가 여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던 것(남아 65%, 여아 43%)을 고려한다면 추후 종단연구를 통해 남아와 여아의 불안장애 발달경로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반면에 불안장애 여아의 경우, 어머니가 여아의 감정과 의사를 존중해주면서 침해적이거나 통제적이지 않은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만 여아의 사회적 민감성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민감성 기질적 성향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대한 일종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여아의 감정이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침해적이지 않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어머니가 통제적이거나 침해적이지 않으면서 여아의 감정과 의사를 존중해주는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우 여아는 사회적 민감성 기질적 성향

이 격려 받게 되고, 이는 갈등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주변에 알리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 조절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결국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은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타인을 배려하고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친사회적 동기를 더 많이 보인다는 한유진(200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아의 경우 동성인 어머니와 심리적 유대가 돈독하고 정서적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남아에 비해 어머니에게 내면의 심리 상태를 더욱 많이 알리고 대화한다(Leaper, 2002). 그러므로 어머니가 침해적이거나 통제적이지 않고 여아의 의사나 감정을 존중하는 경우 여아는 부정적 정서를 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대화를 통해 조언을 구하게 되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적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여아는 평소 어머니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지를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상황에서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덜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여아의 경우 남아와 달리 본인의 심리적 역동을 대인간 관계의 맥락에서 해결해나가려는 성향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여아에게 침해적이거나 통제적이지 않은 양육행동을 사용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여아의 이러한 성향을 격려하는 것이 여아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실제 임상현장에 적용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불안장애 남아의 경우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민감하게 반응적이지 못하고 침해적인 양육행동을 직접적으로 수정해주기 위해 부모교육에 치료의 중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불안장애 남아와 어머니 간 상호작용을 비디오 녹화하여 어머니에게 직접 관찰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민감성을 증진시키고 침해적인 양육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여아의 경우 어머니와 여아 간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고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치료 장면에서 어머니를 참여시켜 심리적 관계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지 않고 상대방 마음 알아맞히기’나 ‘엄마와 함께 (그림이나 책, 성장앨범 등) 만들기’ 등과 같은 치료적 활동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유아가 치료 외적인 측면에서 평소 충분히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치료자가 조언하고 때로는 이를 과제로 제시하는 것도 치료효과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어머니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면 남녀 유아 모두 어머니의 침해성이 중재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특히 침해성이 불안장애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장애 유아를 위한 치료개입에 있어 우선적으로 어머니의 침해성 정도를 살펴봐야 하며, 치료자는 어머니가 유아의 의사나 감정을 존중해주면서 유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자율적 기회를 주도록 부모교육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의미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불안장애로 진단된 임상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임상적 관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불

안장애 유아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접근법 중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대한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Southam-Gerow와 Kendall(2002)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결과가 제공한 정보들이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유아의 성에 따라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성에 따라 유아의 기질적 성향, 그리고 어머니 양육행동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화 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추후 유아기 정신병리 관련연구 설계에 있어 유아의 성이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구체화한 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함께 관찰 측정하였다. 그러므로 실제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불안장애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므로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데 한계점이 있다. 특히 유아기 불안장애의 82%가 이후 회복되었다는 연구결과(Last, Perrin, Hersen, & Kazdin, 1996)를 고려한다면, 추후 본 연구대상에 대한 종단연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가 번안한 관찰 도구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살펴 보았다. 따라서 추후 본 도구를 다른 임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불안증상이 비교적 예의바르고 긍정적 성향으로 인식되는

동양문화권의 가치관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결과가 외국 불안장애 유아와 어머니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본 연구를 외국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에게 실시하여 다문화간 비교를 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불안장애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잠재적인 가외변인이 더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추후 아버지의 양육행동이나 어머니의 불안장애, 유아의 또래관계 등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혜원, 광금주, 박광배 (1995). K-WIPPSI 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정혜, 황상민 (1994). 성별과 사회경제적 환경이 학령전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효과: 도형과 색을 이용한 언어검사를 통해 평가된 언어능력의 비교. *한국심리학회: 발달*, 7(2), 74-91.
- 오현숙, 민병배 (인쇄중). 한국판 기질 및 성격 검사-유아용 매뉴얼. 서울: 마음사랑.
- 우수경, 최기영 (2002a).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분석. *유아교육학회지*, 22(2), 29-55.
- 우수경, 최기영 (2002b).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23(6), 15-31.
- 이경숙, 신의진, 신동주, 전연진, 박진아 (2003). 한국판 영유아 행동문제 평가척도(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K-BASC)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 발달*, 16(4), 175-191.
-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한국 영유아 행동문제 경향과 특성: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4), 53-73.
- 이부영 역 (1994). 정신 및 형태장애. -국제질병분류- 제10판 (ICD-10). 서울: 일조각.
- 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61-493.
- 임희수, 박성연 (2001).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동학회지*, 23(1), 37-54.
- 정윤주 (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아동의 성과 또래수용도의 중재효과의 탐색-. *아동학회지*, 25(6), 205-223.
- 한유진 (2004).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 및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2(3), 65-77.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lbano, A. M., & Krain, A. (2005). Anxiety disorders in girls. In D. J. Bells, S. L. Foster, & E. J. Mash(Eds.),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girls* (pp. 79-116).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elsky, J. (1997). Variation in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 An evolutionary argument. *Psychological Inquiry*, 8(3), 230-235.
- Bretherton, I., Oppenheim, D., Buchsbaum, H., Emde, R. N., &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 (1990). *The MacArthur Story stem Battery(MSSB)*.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Calkins, S. D. (1994). Origins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N. A. Fox(Ed.), *Emotion regulation: Behavioral and biologic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 Cassidy, J. (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In N.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ehavioral and biologic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228-249.
- Cassidy, J. (1999). Relations in Relationship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icchetti, D. (1990). The organization and coherence of socioemotional, cognitive, and representational development: Illustrations through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Down syndrome and child maltreatment. In R. Thompson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6. Socioemotional development* (pp. 259-366).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Cole, P. M., Teti, L. O., & Zahn-Waxler, C. (2003). Mutual emotion regulation and the stability of conduct problems between preschool and early school ag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 1-18.
- Cole, P. M., Martin, S. E., & Dennis, T. A. (2004). Emotion regulation as a scientific construct: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research. *Child development*, 75(2), 317-333.
- Cole, P. M., Michel, M. K., & Teti, L.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73-100.
- Diamond, L. M., & Aspinwall, L. G. (2003). Integrating diverse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emotion regulation. *Motivation and Emotion*, 27(1), 1-6.
- Eisenberg, N., Champion, C., & Ma, Y. (2004). Emotion-related regulation: An emerging construct. *Merrill-Palmer Quarterly*, 50(3), 236-259.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scalona, S. K. (1968). *The roots of individuality: Normal patterns of development in infancy*. Chicago: Aldine.
- Fabes, R. A., & Eisenberg, N. (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1), 116-128.

- Fonagy, P., & Target, M. (2000). *Revised Manual for MacArthur Narrative Completion Task*. Unpublished manuscript.
- Fox, N. A. (1989).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of emotional reactivity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64-372.
- Garner, P. W., & Power, T. (1996). Preschooler's emotional control in the disappointment paradigm and its relation to temperament, emotional knowledge, and family expressiveness. *Child development*, 67(4), 1406-1419.
- Gar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 Goth, K. (2003). *Kurzbeschreibung des Junior Temperament und Charakter Inventars 3-6*. Unveroeff. Manual, Frankfurt.
- Greenberg, L. S. (2002). *Emotion-focused therapy: coaching clients to work through their feeling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amphaus, R. W., & Reynolds, C. R. (1992). *BASC: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Manual*.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Kelsay, K. (2004). *Clinical use of play narratives*. Unpublished manual. The meeting of clinical implications of MSSB In Boulder, Colorado.
- Ladd, G. W. (1992). Themes and theories: Perspectives on processes in family-peer relationships.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pp. 3-3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st, C. G., Perrin, S., Hersen, M., & Kazdin, A. E. (1996). A prospective study of childhood anxiety-disor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11), 1502-1510.
- Leaper, C. (2002). Parenting girls and boy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2nd ed., pp. 189-225). Mahwah, NJ: Erlbaum.
- Mash, E., & Terdal, L. (1981). *Behavioral Assessment of Childhood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ress.
- Mash, E. J., & Wolfe, D. A. (2002). *Abnormal child psychology*. Belmont, CA: Wadsworth/Thompson Learning.
- McFadyen-Ketchum, S. A.,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1996). Patterns of change in early childhood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ions from early coercive and affectionate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67, 2417-1433.
- Mick, M., & Telch, M. (1998). Social anxiety and history of behavioral inhibitions in young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 1-20.
- Osofsky, J. D., & O'Connell, E. J. (1977). Patterning of newborn behavior in an urban population. *Child Development*, 48, 532-536.
- Porges, S. W., Doussard-Roosevelt, J., & Maiti, A. J. (1994). Vagal tone and the physiological regulation of emotion. In N.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pp. 284-303).

-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 Rydell, A., Berlin, L., & Bohlin, G. (2003).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adaptation among 5-to-8-year-old children. *Emotion*, 3(1), 30-47.
- Sattler, J. A. (2002). *Assessment of children: behavioral and clinical applications*. San Diego: Jerome M. Sattler, Publisher, Inc.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906-916.
- Shields, A., Cicchetti, D., & Ryan, R. M.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and behavioral self-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among maltreated school-age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57-75.
- Southam-Gerow, M. A., & Kendall, P. C. (2002). Emotion regulation and understanding implications for child psychopathology and therapy.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189-222.
- Stansbury, K., & Gunnar, M. P. (1994). Adrenocortical activity and emotion regulation. In N. A.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Serial No. 240), 108-134.
- Tanaka, J. S. (1987). How big is big enough? Sample size and goodness-of-fi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latent variables. *Child Development*, 58, 134-146.
- Tannen, D. (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New York: Ballantine Books.
- Thomas, A., Chess, S., & Birch, H. G.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Warren, S., & Simmens, S. J. (2005). Predicting toddler anxiety/depressive symptoms: Effects of caregiver sensitivity on temperamentally vulnerable children. *Infant Mental Health*, 26(1), 40-55.
- Weinberg, K. M., Tronick, E. Z., Cohn, J. F., & Olson, K. L. (1999).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expressivity and self-regulation during early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75-188.
- Wittchen, H. U., & Essau, C. A. (1994). Epidemiology of anxiety disorders. In P. J. Wilner (Ed.), *Psychiatry*. (pp. 1-2).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원고접수일 : 2007. 3. 14

수정원고접수일 : 2007. 5. 3

게재결정일 : 2007. 5. 9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of preschoolers
with anxiety disorders and their dysfunctional emotion regulation**

Jin-Ah Park

Moon Ja Chung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of preschoolers with anxiety disorder and their dysfunctional emotion regulation. Second, it explored sex differences in the moderating effects. The subjects were 105 preschoolers, with 64 boys and 41 girls(aged between four and half years old and six years old) who were diagnosed with anxiety disorder and their mothers. Preschoolers' temperament was assessed by mothers using JTCl(Goth, 2003). Mothers' parenting behaviors were observed during mother-preschooler interactions at a laboratory and analyzed using P-CIPA(Mash & Terdal, 1981). Preschoolers' dysfunctional emotion regulation was measured by Emotion Regulation Scale(Fonagy & Target, 2000).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artial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Mothers' parenting behaviors(sensitivity · reactivity and intrusiveness)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boys' temperament(harm avoidance) and their dysfunctional emotion regulation. As mothers were less sensitive · reactive and more intrusive, boys' harm avoidant temperamen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ir dysfunctional emotion regulation. Mothers' intrusive parenting behaviors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girls' temperament(reward dependence) and their dysfunctional emotion regulation. As mothers were less intrusive, girls' reward dependent temperamen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ir dysfunctional emotion regulation.

Key words : preschooler with anxiety disorder, preschoolers' temperament, mothers' parenting behaviors, preschoolers' dysfunctional emotion regulation